

Boeing Defense, Space & Security
6005 South Air Depot Blvd
Oklahoma City, OK. 73135
www.boeing.com

베런 아이셀 (Beren Icel)

글로벌 영업·마케팅 총책임자

보잉 방위, 우주 및 보안

베런 아이셀은 현재 오클라호마시티에서 항공기 개량 및 현대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. 아이셀은 E-7 조기경보통제기 프로그램의 사업개발/확보 팀을 이끌며, 특히 마케팅·영업, 전략·혁신 및 신사업 통합



업무에 주력하고 있다. 이전에 그는 보잉 고위 인사 수송(Executive Transport) 부서를 지원하며 VC-25, C-32, C-40 및 해외 국가원수 전용기 프로그램 경쟁 입찰 캠페인 및 제안서 작성 업무를 이끈바 있다.

현재 근무지로 이동하기 전, 베런은 통합 물류 지원 프로그램 선임 관리자로 근무하며 보잉 필라델피아 현장에서 V-22 오스프리와 CH-46 시나이트 프로그램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고객, 제품 및 프로세스 관련 지식을 십분 발휘했다. 베런은 2008년 1월에 H-47 치누크 최종 생산 및 시험 비행 공급 사슬 관리자로 보잉에 합류했다. 당시 그는 현장 전반의 자산 관리 및 공급사슬 관련 전체 부서 관리를 책임지며 다양한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.

보잉에 입사하기 전, 베런은 9년 이상 미 해군 보급과 장교로 근무하며 물류, 획득, 공급 사슬, 프로젝트/프로그램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이끌었다. 또한 그는 미 국방계약관리국에서 프로그램 통합 담당자로서 CV-22 프로그램 계약을 총괄했다. 필라델피아로 이동하기 전 그는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군함인 USS HOWARD (DDG-83)의 보급과에서 승선근무하며 물류 업무를 담당했다. 그는 또한 워싱턴 DC 소재 미 해군해양체계사령부에서 획득 물류 분석가로 활동하며 잠수함 프로그램 담당국(Team Sub Program Office)과 해군 유지관리 및 현대화 담당국(Navy Maintenance and Modernization Office, SHIPMAIN)의 프로젝트 관리감독 및 지원을 담당했다. 또한 2001년 9.11 테러 직후 그는 런던 소재 주영 미 해군 지역대의 부국장으로서 물류 및 구매 담당 업무뿐 아니라 해외 소재 군기관의 운영 및 보안 책임자 역할까지 담당하며 그의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다. 베런은 미 해군 주력 군함 중 하나인 USS ANZIO (CG-68)의 승선근무 보급과 장교로 처음 입대하였다.

필라델피아에서 근무하던 당시 베런은 자신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세인트조셉대학교에서 비즈니스 분석학 겸임 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. 그는 바쁜 커리어와 학업을 병행하여 빌라노바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정보시스템 및 국제비즈니스 전공으로 경영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. 베런은 오클라호마대학교에서 해군 학군단(ROTC) 장교 장학생으로 역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. 또한

그는 국방획득대학으로부터 프로그램 관리 및 통합 물류 지원 DAWIA 인증을 받았으며, 버지니아대학교 다든(Darden) 경영대학원에서 DASN ATL의 사업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.

텍사스 휴스턴 출신인 베런은 현재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에 거주중이며, 아내인 캐리 앤 윌러 박사와 슬하에 세 아들 키란, 코너, 그리고 카메론을 두고 있다.